

[사회]

교육청-지자체 교부세 갈등

시·도 교육청 “법적 분담금 왜 안주나” 일선 지자체 “열악한 재정 악화 초래”

광주·전남 시·도교육청과 일선 지자체가 ‘부동산 교부세 전입’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당국은 부동산 교부세 전입은 “차지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적 분담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재정의 자율편성에 역행하고 열악한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맞서고 있다.

23일 광주·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광주·전남 각 지자체가 일선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부동산 교부세는 광주 94억4천여만원, 전남 427억5천여만원이다.

이 재원은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신설된 세목에 따른 것으로 이 가운데 20%를 영여체합화습센터지원(10%), 방과후 보육·교육지원(4%), 지역교육현안사업(6%) 등에 사용토록 했다.

광주의 경우 복구가 25억5천만원으로 분담액이 가장 많고, 광산구 21

억6천만원, 서구 18억2천만원, 남구 14억7천만원, 동구 14억3천만원 등이다. 전남은 나주와 여수가 22억2천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장흥·구례·고흥·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이 21억7천여만원 등이다.

하지만 법 개정 6개월이 지나도록 광주·전남 일선 상당수 지자체가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등 지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봉근 광주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청이 영여체합센터 건립비 1억원 지원을 약속한 것외에는 분담금이 확보되지 않아 최근 추경에 보육교실사업비(7억원)를 계상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연말이나 돼서 지원이 된다면 방과후 교육활동의 경우 충분한 계획수립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연도내 집행이 어렵게 된다”며 “현재 해당학교로 지원이 되어야 내실있는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 지원에 대해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지역교육현안사업비로 지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교육현장에 지원금이 투입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남의 모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교육시설이나 학교급식 개선 등에 많은 재원을 지원한 상황에서 영여체합센터 지원 등은 중복 성격이 짙다”며 “지자체의 자율적 예산편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 사업을 지자체에 넘긴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유행성 눈병 해마다 증가

전남 발생 빈도 잦아

유행성 눈병이 최근 몇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팀에 따르면 유행성 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 각결막염(일명 아폴로눈병) 발생 사례가 지난 3년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 숫자는 2005년 5만5천183명에서 2006년 5만7천461명, 지난해 6만2천47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급성출혈성 각결막염 환자 수는 2005년 8천555명에서 2006년 2만5천107명으로 급증하다니 지난 해에는 3만5천900명까지 늘어났다.

두 질환 모두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들의 발생 비율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만큼 높았고,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남, 제주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 빈도가 잦았다.

계절적으로도 여름철인 7~8월부터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9월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남뉴스



보리 수매 시작... “1등급 받아야 할텐데” 2008년산 보리 수매가 23일 시작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이날 하루동안 광주시 북구 용두동 용두창고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보리 3천838기(40kg 기준)를 수매했다. /위정작기자 jwi@kwangju.co.kr

들어온 장맛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전부터 한두차례 비가 오겠다

6월 24일 (음 5월 21일) 전국날씨

광주	흐리고 한두차례 비	20~24°C
포항	흐리고 한두차례 비	19~23°C
여수	흐리고 한두차례 비	19~22°C
완도	흐리고 한두차례 비	19~23°C
구례	흐리고 한두차례 비	19~24°C
해남	흐리고 한두차례 비	20~24°C
홍천	흐리고 한두차례 비	18~24°C
고흥	흐리고 한두차례 비	18~23°C
순천	흐리고 한두차례 비	19~24°C
영광	흐리고 한두차례 비	19~24°C
진안	흐리고 한두차례 비	19~25°C
전주	흐리고 한두차례 비	19~25°C
남원	흐리고 한두차례 비	19~25°C
원주	흐리고 한두차례 비	19~25°C
춘천	흐리고 한두차례 비	17~20°C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05:37 썰물 < 11:00
 목포 밀물 < 17:48 썰물 < 23:01
 여수 밀물 < 00:12 썰물 < 06:29
 여수 밀물 < 12:29 썰물 < 18:21

▲해돋이 05:19 ▲해질 19:51 ▲달출 23:21 ▲달짐 10:1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날씨						
최저/최고	20/26	19/28	19/29	20/28	20/26	21/28

영세민·농어민 소송비 국가가 지원

법 개정 29일부터 시행

기소생활수급자나 농·어업인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법률구조법 및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이 규정한 지원 대상자는

기소생활수급자와 농·어업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및 2세 환자, 특수입무수행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범죄 피해자 등이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때 소액이나 일정 비용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무료로 법률구조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남뉴스

KT 전화료 청구서 ‘말썽’

KT전화요금 고지서에 이용하지도 않은 전화번호 광고 등재료가 합산 고지돼 말썽이 일고 있다.

23일 KT와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6~17일 발송된 나주지역 일부 고객의 6월분 전화요금 고지서에 ‘타사서비스 전화번호 광고 등재료’ 명목으로 한 고객에 1만9천900원이 추가돼 피해자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는 사실 전화번호부 제작 업체인 ‘코리아닷컴전화번호부’가 광고주들에게 광고 게재 확인을 받지 않은 채 요금 징수를 요청한 것을 징수 업무 대행업체인 ‘홍익테크’가 신청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KT측에 청구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KT는 직접 피해를 입은 250여 고객에게 부과된 요금은 물론 코리아닷컴전화번호부가 6월분으로 요청한 전국 2만여건에 대해서도 감액조치 후 고지서 재발송에 들어갔

다.

또 물의를 일으킨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KT 서비스개발부 관계자는 “KT는 정부의 고시에 따라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전화부가서비스 관련 요금 징수를 대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직접 관련은 없지만 피해를 본 고객들도 모두 KT고객인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닷컴전화번호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영업하는 과정에서 광고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동의서를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고객들에게 전화 통해 사과했으며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조치하고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시국회의 27일 대토론회

촛불집회 방향성·의제 등 다양하게 논의

미국산 쇠고기 고시 관보제제가 임박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가 대토론회를 통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시국회의는 오는 27일 오후 4시께 동구 금남로 광주YMCA에서 소속 단체들이 모여 ‘광주전남 시국회의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40여일 이상 진행되고 있는 촛

불집회의 중간평가와 더불어 한미 FTA·교육 문제 등의 의제 다양화, 조직의 상설화, 촛불집회의 방향성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토론회 이후인 28일 촛불문화제는 6·29 민주화선언 하루 전날인 만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6월 항쟁 20주년 기념일인 지난 10일 촛불집회에 시민 3만여명이 참가한 만큼 28일 행사에서도 대규모 군중을

모아 미국 쇠고기 고시를 막겠다는 의지다.

시국회의의 관계자는 “촛불집회 참가 시민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추가협상 발표를 수용한다기보다 재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따른 답답함이 커져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활동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암 유발 인공감미료 광우병 보도 PD수첩
 중국 술서 검출 검찰 수사 착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산 및 수입산 식품류 21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일부 중국산 술에서 발암 논란으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인공감미료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중국산 주류 21건, 중국산 감치류 22건 등 수입식품 63건을 포함해 모두 214건에 대한 국내 식품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중국산 술 2건에서 싸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싸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수십 배 강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발암 논란으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연남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수사외환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수사의뢰서 및 관련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농식품부와 PD수첩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사의뢰서에서 “PD수첩이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vCJD)인 것처럼의 도적으로 왜곡했고 라면과 화장품 등을 통해서도 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연남뉴스

광고 및 부동산 관련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 광고를 포함한 페이지. 주요 광고에는 '중고자동차 전차중 매입·판매'와 'SONY 모든것'이 포함되어 있다.